

뉴라텍/NEWRACOM 소식 (2019년 7월 둘째주)

2019. 7. 8.

◇ “와이파이6 시대 연내 본격화”... 뉴라컴, 표준특허 통한 로열티 수입기반 본격 확대

- 셀룰러 진영의 5G와 함께 차세대 무선통신을 이끌 ‘와이파이6’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다양한 단말기 및 라우터(공유기)에 탑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에는 극히 일부의 스마트폰, 라우터, 노트북 등에만 한정적으로 탑재된 ‘와이파이6’ 칩셋이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시장에서 본격 날갯짓을 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뉴라텍 미국 자회사인 뉴라컴은 지난 ‘14년 설립 시부터 와이파이6에 대한 국제표준화에 참여한 핵심기업으로서 세계 Top4 수준의 표준화 기여 및 이에 기반한 표준 특허 발명·확보가 본격적으로 빛을 발할 것으로 전망
- 뉴라컴이 확보하고 있는 표준 관련한 등록 특허는 6월 말 현재 총 136건이며, 출원이 완료된 191건은 현재 순차적 등록을 위한 심사를 진행 중에 있음.

[뉴라컴 및 뉴라텍 특허 보유 현황]

| 구 분 | 국 가 | | | | | | 계 |
|-------------|-----|-----|----|----|----|----|-----|
| | PCT | 미국 | 한국 | 중국 | 유럽 | 기타 | |
| 출원(등록 심사 중) | 26 | 55 | 67 | 7 | 14 | 22 | 191 |
| 등록 | | 124 | 8 | | 3 | 1 | 136 |
| 계 | 26 | 179 | 75 | 7 | 17 | 23 | 327 |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ABI Research(에이비아이리서치)가 전망한 ‘19~’23년 기간 중 와이파이6 칩셋 출하량의 경우, ‘19년에 4천 8백만 개에서 ’23년에는 12억 8천 8백만 개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동 기간 중 무려 33억 7천만 개의 시장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이러한 폭발적 시장 성장과 관련하여 국내 특허가치평가 전문기관인 (주)웍스가 ‘17년도에 평가한 뉴라컴의 표준특허 미래가치는 ‘20년~’34년도 기간 중 미화 약 966백만 달러(한화 1조 1,399억원)로 와이파이6 1개 칩셋당 받을 수 있는 로열티(기술료) 수입은 약 0.1달러인 것으로 평가함.
- 한편, 특허, 표준 등 무형자산 비즈니스에 저명한 미디어 그룹인 IAM에서 발행한 산업보고서(’18년 4월)에 따르면, 와이파이6 표준화에 대한 글로벌 Top 10 기업으로 퀄컴(604건)이 수위를 차지했으며, 인텔(412건), 화웨이(32건)에 이어 뉴라컴이 317점으로 당당히 4위를 차지. 5위에는 세계 최대 와이파이 칩 생산업체인 브로드컴(307건)이, 뒤를 이어서는 마벨, 미디어텍, LG, ZTE, 애플이 각각 6~10위를 차지. 특히 Top 10 기업 중 뉴라컴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출/수익 규모 및 종업원 수에 있어 초우량 글로벌 기업으로서 뉴라컴이 이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임.